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로 가을의 문턱에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9월은 계절이 바뀌며 마음도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새 학기와 새 업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장마 뒤의 습기와 태풍 소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026년 추석 연휴가 9월 24일(목)~26일(토)로 다가오니 이동과 만남이 많아질수록 기도로 중심을 붙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래 기도문들은 길지 않지만, 예배 대표로 서는 분이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핵심을 담았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마음에 맞는 문장을 붙잡아 하루에도 몇 번씩 짧게 올려드리며 9월을 걸어가 보세요. 대표기도를 맡은 분은 물론, 회중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을 올릴 때 예배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한문장씩 따라 기도해 보세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1 가을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주님, 9월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제 마음이 바쁘고 흩어질 때에도 말씀의 빛으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일정과 책임 앞에서 두려움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 저의 마음을 살피사 불평과 조급함을 씻어 주옵소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낙심했던 마음,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던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한 걸음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번 달의 만남과 대화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날카로워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배려로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집중과 성실을, 일하는 이들에게는 정직과 창의성을, 쉬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셔서 성급히 달리지 않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시간 사용과 소비, 관계의 우선순위까지 주께 맡깁니다. 제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9월의 시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의 순종을 통해 한 달의 흐름이 바뀌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제 입술과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2 학교와일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와 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9월에, 저희의 손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성과만을 쫓다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마다 겸손을 주옵소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용기를 주시고,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과 평가 앞에서 불안이 커질 때에는, 결과보다 주님 앞에서의 정직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을 지키게 하옵소서. 편법이 쉬워 보일 때에도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지혜롭게 말하게 하옵소서. 상사와 동료, 거래처와 고객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친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일만 급하다고 주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성실하되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가 늦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땀방울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학교와 일터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께 하듯” 다시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제 삶이 복음의 향기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3 태풍과안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주님, 9월에도 태풍과 비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가 두려움의 말부터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동이 많은 날에는 사고가 없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의 집과 일터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과 밤늦게 귀가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혹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빠르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조와 복구를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갑작스런 변수로 계획이 무너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전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경각심을 잃지 않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정보와 행동을 잘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준비 위에 주님의 보호가 덮이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소식이 들려도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웃을 살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4 추석과가정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하나님, 2026년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는데, 주님이 먼저 위로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신 은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부족함 때문에 큰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이 가정의 분위기를 살리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 오래된 오해와 서운함이 남아 있다면, 주님이 먼저 저희를 만져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제 마음을 주님께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움직임이 많은 연휴 동안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길 위에서 사고가 없게 하시고, 피곤함으로 예민해지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기다려 주는 여유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이 비교와 평가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의 삶을 재단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홀로 지내는 이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위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명절이 단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말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5 추수와감사

“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니”
(신명기 28:12)

주님, 들녘이 익어가고 마음도 가을로 깊어지는 9월에,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손에 쥘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셉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보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붙잡아 주신 손길,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 주신 한마디 위로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억지 미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재정, 재능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눔이 두려울 때에는 “주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수확의 기쁨이 있는 자리마다 겸손을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취의 순간에도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반대로 열매가 더딘 이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다려 주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작은 칭찬과 축복의 말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삶의 공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의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날에는 겸손하게, 부족한 날에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6 교회와예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2)

주님, 9월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신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라는 고백이 새롭게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담대함과 눈물을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에게는 기쁨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무릎을 기억해 주시고, 각 부서와 다음 세대 사역에 주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판단이 앞설 때에는 사랑으로 멈추게 하시고,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잡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도에게는 환대가 있게 하시고, 오래된 성도에게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표로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중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병든 지체와 낙심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작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이 지칠 때마다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9월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9월)8 나라와이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 우리의 9월이 개인의 계획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의 필요도 크지만, 이 땅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겸손을 주시고, 서로 다른 생각이 갈라놓는 시대에 교회가 미움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일자리를 잃은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2학기가 깊어지며 압박이 커질 때, 아이들과 청년들이 성적과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괜찮다, 함께 간다”는 위로가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울부짖는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히 한반도에 복음의 길을 여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화해와 소망이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지역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나눔과 돌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순종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자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자비를 행할 때 진리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9월을 주님의 나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이웃을 품게 하시고, 예배의 기도 흐름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